

대림 제4주일

제1독서 : 이사7,10-14

제2독서 : 로마1,1-7

복 음 : 마태 1,18-24

숲 정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태 1,21a)

강 련

소 리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

현유복 신부 / 용머리 천주교회

대림초 네 개가 다 켜진 오늘, 우리 모두는 좁고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뻐한다.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경이롭다. 못난 사람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가장 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요셉을 통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가진 것 없고, 남들처럼 드러낼 것도 없는 요셉을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다. 거칠고 험한 목수의 손에 아기 예수님을 맡기신 하느님의 심오한 섭리, 그것은 흠송하울 우리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라고 당황한다. 때로는 불평하기 일쑤이고 그분의 방법이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댄다. 선한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온갖 실수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우대받으며 잘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기고 피로움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일찍이 프랑스의 대문호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현세의 만물이 다 질서정연하되 상선벌악만이 질서답지 못한 듯 하나, 사람이 죽는 것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오, 오히려 그 질서답지 못한 것을 바로 잡아 줄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는 우주보다 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다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역할을 다 하신 뒤 역사의 뒀안길로 서서히 사라져간 요셉 성인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자.

‘산타 클로스’

4세기쯤 지금의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미라’의 교구장이었던 ‘니콜라스’ 신부가 가난한 한 상인의 세 딸에게 몰래 시집갈 밑천을 전해 준 것이 ‘산타 클로스’의 기원이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아껴, 어린이 주보성인이 된 그가 한밤중 금화 한 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은 것이 공교롭게도 굴뚝 옆에 걸어 놓은 양말 속으로 떨어져 ‘양말풍습’의 유래가 됐다.

네델란드 사람들은 성인 ‘니콜라스’를 ‘산타 클라스(Sinter Klass)’로 불렀고 뉴욕에 이민온 이들은 그의 축일인 12월 6일에 축제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중 영국 이주민들이 이를 ‘산타 클로스’로 부르며 축제를 ‘크리스마스’로 맞았다. 사슴과 썰매는 1823년 미국의 ‘클레멘스 무어’가 쓴 “크리스마스 전날 밤...”으로 시작되는 “니콜라스 성인의 내방”이라는 동시에 등장하면서부터다.

이처럼 ‘산타 클로스’는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는 인자한 모습이고 어린이들에게는 눈길을 헤치며 사슴썰매를 타고와 선물을 나눠 주며 꿈을 키워 주는 할아버지 모습이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져 내린 현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양말 속의 정취가 담긴 ‘산타’의 부활이 아쉽다.

☐

숲 정 이 산책



성서교실 66

“나를 네 선조들 옆에 묻어 다오”(창세49, 19-33)

이 성서말씀은 앞과에 이어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남겨 준 예언과 축복의 말로 이번에는 요셉을 위시하여 나머지 다섯 아들에 대한 신탁을 들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겠다.

갓이라는 이름은 습격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자리잡은 갓 지파는 동쪽과 남쪽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다(신명33, 20-21).

아셀지파는 갈멜산과 페니키아 사이의 해변가에 자리잡았는데, 이 지역은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신명33, 24). “왕에게 진상 하리라”는 표현은 아셀지파가 자기네 지역의 가나안 왕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판판1, 32).

납달리 부족은 산악지대에 살면서 재빠르게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그 신속한 기동성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 밑에 형성된 에브라임과 므나쎄 부족은 북왕국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앞에서 우리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나쎄를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항렬에 올려 세운 사실을 기억한다. 야곱은 요셉과 그 후손에게 가장 풍요로운 축복을 내려 준다.

요셉의 원수들이 아무리 그를 공격하더라도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승리는 야곱의 강하신 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네 아버지의 하느님,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어 요셉에게 내린 여러 가지 복은 농업과 관계된 복이다. 첫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는 지하수, 둘째 가축과 인간의 풍성한 출산, 셋째 산과 언덕들에서 흘러내리는 축복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산과 언덕에 살고 있는 신이 축복을 내려 준다고 믿는 우가릿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신탁에서 그를 “약탈하는 늑대”로 비유한 것은 이 부족이 호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여호5, 14). 성서에서 이 대목 이외에는 늑대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끝내고서 마지막 유



언을 남긴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선친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야곱이 언급한 막벨라 동굴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안장시킨 곳이고, 그 자신도 거기에 묻혔으며 야곱의 선친 이사악도 묻힌 곳이다. 창세기의 저자는 처음으로 이사악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여기에 묻혔다는 사실을 전해 준다. 야곱은 말을 마치고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상에 바로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둔다. 그는 스스로 파라오 앞에서 고백했듯이 마침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조상들의 땅으로 떠났다.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고, 아버지 이사악으로부터 총애를 못 받은 불리한 삶의 조건을 안고서, 야곱은 온갖 지혜와 성실한 노력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갔다. 특히 역경중에서 언제나 하느님의 도우심을 찾고, 의존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사악으로부터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그 때문에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감수해야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그의 생애는 장자권을 빼앗긴 에사오보다 훨씬 험난한 생활로 이어졌다. 임종시에도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에집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한마디로 완전한 순례자였다.

하이패션
마드모아젤 전주점 오픈
(구·라모드)
나 경 섭(안셀모)
오 정 애(젼 마)
전통백화점←→기린오피스텔 중간
☎ 88-8620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라리아)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LG 에어컨 전문점
* 96년 신제품 예약판매 *
· 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12% DC
· 기본설치비 무료 · 12월18일까지
원종삼(발비라)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251-0190~2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A/S 전문점
· 6개월 무이자 판매
· 36개월 월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84-6085, 84-9989

잡간

고요한 밤을 그리며

오늘 밤은 우리가 그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설렘으로 기다려 온 성탄, 하느님이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이 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성탄절을 맞아 왔지만 아직 신앙인의 것이 되지 못하고 연말 연시의 향락의 분위기 속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성탄이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 찬란한 전등으로 치장되어도, 진정 신앙인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성탄절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화려한 겉모습만 본뜬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주인 없는 축제이고 알맹이는 빠져 버린 껍데기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희망에 벅차게 하고 기쁨에 넘쳐 떨게하며 누구에게나 낙원이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교회는 오늘 밤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가장 크고 완전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환희와 찬미의 노래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가난의 축제'이므로 자기 생활 주변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시기이며 자기 생활 주변 안에 친밀성을 보존하는 풍요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겸손을 기도와 묵상으로 사색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밤 성탄 축제는 주인공인 그분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 구세주의 탄생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가난과 겸손 고요함 속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비움 안에 간절한 기다림 속에 오십니다. 오늘 밤 우리들도 분주함과 유희를 벗어나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분을 맞아들이도록 합시다.

교구 소식

1. 이병호 주교 미사일정 : 성탄전야 미사 - 12월 24일(일) 오후 11시 중앙 성당
성탄 대축일 미사 - 12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익산 공소
 2. 전주 선택 송년모임 : 12월 25일(월) 오후 2시 예정학원 2층 안골 거성프라자앞
 3. 가톨릭 사진가회원 모집 : 사무국 홍보부, 문의 ☎ 85-0041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12월 29일(금) 밤 11시, 전동 성당
 5. 박종충 신부 주소 : Los Manzanos #202
Residencial San Felipe
JESUS MARIA
LIMA PERU ☎ 001(002)-51-1-463-4833
 6. 기억할 사제 : 12월 27일(수) 김후성(프란치스코) 신부 41주기
- ※ 축! 영명 :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 박대덕, 정삼권 신부님
27일(성요한사도 복음사가)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종복, 이덕근, 김진태, 김희태, 권완성 신부님

요심이 (1164) 김병오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 대상 : 전신자(연령제한 없음)
- 과목 : 성서, 신학전반, 영성
- 접수기간 : 96.1.4~1.23
- 원서청구시 소액환 ₩5,170동봉
서울 종로구 혜화동90-12
☎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컴퓨터 프라이어 마트
특별 판매 기간
컴퓨터 · CD · 프로그램
이 건 이(프린치스코)
평화주공 1단지 입구
☎ (0652)231-2237

남문 노트 사
문구 · 사무용품 전문도매센터
크리스마스 추리전문
원 수 관(야고버)
심 경 이(마리아)
☎ 83-3352, 7720
FAX 83-7721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 · 피부과
메이크업 · 분장과
김 금 순(테레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박진상 한의원
추나(허리치료) 전문
박 진 상
김 정 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 241-5553, 242-5553

군산지구 교회모지(니운동, 나포)이장 및 석물업자 선정 임찰

1. 임찰방법 : 일반 경쟁입찰
2. 임찰 참가 등록마감 일시 : 12월 26일 오후 5시
3. 임찰, 설명장소 : 12월 27일(수) 오전 11시 둔율동 천주교회
4. 임찰 참가자격 : 천주교 전주교구내 신자·모지이장 사업 및 석물업자 가격중 소유자, 분당신부 추천 받은 자
5. 문의전화 : (0654) 43-2461

군산지구 천주교회 모지관리 위원회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4주일
- ◎ 축! 세례: 오늘 저녁 9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영세자 대부분께서는 8시30분까지 입장하세요.
- * 영세자 환영식: 내일, 공식미사 후
- 1. 구역분과 차장 임명
최영숙(테레사) 안환운(테레사)→조분남(세노비아) 윤은희(글라라)
· 중노 2구역 회장: 최영숙(테레사)→김경자(테레사)
· 중노 3반: 윤경자(베로니카)→윤은희(글라라)
수고하시겠습니다.
- 2. 성탄 자정미사: 오늘, 밤 11시
* 구유경배 있음(구유헌금)
- 3.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25일, 전 10시30분
- 4. 모임: ①천사의 모후Cu. (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7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8일, 전 10시30분)
- 5.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미납된 교부금 납부와 96년 교부금 신입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6. 송년 미사: 31일 저녁 7시미사가 없고, 저녁 8시에 있음.
- 7. 금주 청소: 중노 10, 11반
차주 청소: 기린봉 1,2반
- 지난해 봉헌금: 992,140원 □ 교부금: 6,037,500원
□ 2차헌금: 403,59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헌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축! 성탄-영세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성탄대축일 미사: 24일-밤 11시, 25일-9시, 10시반, 7시
(25일 10시반 성탄 대미사중에 34명 영세)
- 1. 사목회 임원 명단: 사목회장-박상기 안드레아, 부회장-김홍현, 강기연, 총무-육종만, 전례-김승현, 선교-김용식, 재정-안철조, 교육-오교성, 청소년부장-장홍희, 차장-조윤일, 구분장, 홍보-정승훈, 사회복지-박남수, 애령-이갑진, 여성-황옥진, 구역-홍인자, 감사-강영진, 오경의, 교문-신일균, 이성인, 황길평 "주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2. 유아 세례: 30일 오후 6시반
- 3. M.E 모임: 29일 오후 7시반
- 4. 본당의 날 찬조금: 빠스카(20만원) 울뜨레아(10만원) 빈첸시오회(3만원)
- 5. 96년도 교부금 신입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유경수 부부, 봉헌-안철조 가족
25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박남수 부부, 봉헌-오경의 가족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조윤일 부부, 봉헌-구분장 가족
- 성당 청소: 12월30(토) 천사의 모후Pr, 사도의 모후Pr.
- 주일헌금: 872,950원 □ 교부금: 3,994,000원
□ 감사헌금: 100,000원(채 테레사)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감덕용

- ◎ 축! 성탄: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 ◎ 예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1. 모임: ①자모회-공식미사 후
②푸르실료 울뜨레아-30일(토) 저녁 7시
③성모회-다음주일
- 2. 성탄 대축일 행사: 24일(오늘) ①초중고 학생 예술제-저녁 7시
②구유 축성 및 경배의식-저녁 10시 ③전야 미사-10시30분
25일(월) ①대축일 미사-10시 ②친교의 시간-11시
- 3. 성탄절 고백성사 못 보신 분은 서둘러 보시고 연중 교부금도 완납하십시오.
- 4. 사제 양성 후원금 봉헌: 세대별로 1천원 이상(구역장에게)
- 5. 지속적인 심체조배 교육: 30일(토) 저녁 6시미사중
31일(일) 10시미사중, 감사-문계현 회장
- 6. 감사: ①성전 보수비 봉헌-박선순(50,000) 박용철(30,000) 황옥섭, 이정우, 한동욱, 박봉남, 박인순, 박옥순, 장옥경 일동(101,700) 계-181,700, 누계-9,429,700원 ②꽃 봉헌-양요섭(5만원) 이서운(1만원)
- 7. 성탄 청소: 금주-천주의 성모Pr, 차주-구세주의 모친Pr.
- 8. 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김완식 ②이석남
봉헌-김한철 가정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양주태 ②송정자
봉헌-이순기 가정
- 지난해 봉헌금: 352,700원 □ 교부금: 1,053,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 1. 성탄 미사 안내: 성탄 자정미사-24일(일) 후 10시
성탄절 미사-25일(월) 전 10시, 후 4시(어린이미사)
- 2. 서학 성탄의 밤 행사 안내
제1부: 한사랑 잔치 및 행운권 추첨(오후 7시~9시30분)
제2부: 자정미사(오후 10시)
제3부: 먹거리 잔치
(행운권 상품을 찬조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3. 해외 성지순례자 모집: ①출발-1월22일(월) 8박9일 ②도착-1월3일(화) ③코스-프랑스루르드, 이태리, 아제시, 바티칸, 예루살렘 성지 및 티베리아 호수 ④경비-200만원 ⑤마감-12월28일까지(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 4. 본당 달력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 모임 안내: 반장회-24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 6. 청소 안내: 금주-사랑의 샘, 차주-상아탑

□ 지난해 봉헌금: 1,012,800원 □ 교부금: 2,415,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 ◎ 축! 예수 성탄 대축일
기아 난민 돕기 사랑나눔대잔치에 적극 참여합니다.
(24일 공식미사 후와 저녁 8시부터~0시, 성당 마당)
- 1. 금주: ①크리스마스 대축제-오늘밤 8시
②성탄 성야미사-24일 밤 11시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2. 축! 영세: 25일 공식미사중(하느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5일 낮미사 오전 9시, 10:30, 오후 3시, 5시, 7시.
- 3. 송년미사: 31일(일요일) 밤 11시
(12월31일 7시미사는 송년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 4.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 새벽 5:30, 10:30, 오후 7시(의부축일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 주일헌금: 2,085,3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AX 82-6686 사목회장 감삼근

-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투가 2,14)
- ◎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24일 저녁 10시, 강릉-범석규 신부
- 1. 예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전 9시, 전 10:30, 후 3시(어린이), 후 7시, 2. 성탄 예술제: 25일 저녁 7시미사 후(가족 성가출연하실 분 환영합니다)
- 3. L.M 언자 총 친목회: 26일 저녁 7시미사 후, Pr별로 준비
- 4. 합동 혼배성사: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31일) 공식미사중
- 5. 성모회 송년잔치: 27일 어머니미사 후
- 6. 성가대 정기총회 및 송년회: 28일 전 10:30(수고에 감사함니다) 7. 교리교사와 자모회 사랑의 나눔: 28일 저녁 8시
- 8. M.E 가족 송년 나눔: 29일 저녁 8시, 지하 교리실
- 9. 형제 기도회: 28일 저녁 8시30분, 8구역 8,9반 이상식(요셉)택, 9동 405호. 10. 자선의 날: 27일 어머니미사와 아버지미사중
- 11. 송년미사: 31일 저녁 10시, 석별의 밤
- 12. 회의: 울뜨레아 총회 및 봉사회-오늘 공식미사 후, 빈첸시오회-28일 전 10시
- 13. 새 예비자반 모집: 96년 1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수요일만 목요일로) 14. 예수님상(대리석): 한민선교회 성전 건립기금-30,000원. 15. 96년도 교부금 신입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바람.
- ◎ 오늘 공식미사 후 대청소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 주일헌금: 1,509,820원 □ 교부금: 4,347,000원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12월달은 쉽니다).